

“명절 연휴 끝”...대형마트 ‘포스트 추석’ 마케팅 돌입

가을 맞이 특가·할인행사 등 마린 이마트, ‘9월 가격파괴 선언’ 진행 롯데마트, ‘스노우플랜 가을페스타’ 홈플러스, AI 활용 가을먹거리 선봬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각종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10월 2일까지 ‘9월 가격파괴 선언’ 프로젝트로 장바구니 필수 재료부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먹거리를 제공한다.

필수 식재료인 ‘감자(1kg/봉)’를 직전 판매가 대비 43% 저렴한 kg당 1980원에 판매한다. ‘연어 필렛회(노르웨이산)’는 기존 정사가 대비 약 37% 할인된 100g당 3890원에 판매한다.

이번 9월 가격파괴 선언 행사를 위해 기획한 신상품도 선보인다. 이마트는 협력사와 4개월 전부터 사전 기획을 바탕으로 ‘양념 돼지 갈집구이(미국산, 700g·2팩)’ 200톤 물량을 1만5980원에 판매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양으로 1.4kg 기준 1만5980원인 가성비 상품이다. 이는 기존 상시 운영하는 유사 상품인 ‘양념 목심구이(800g, 1만3980원)’ 대비로는 약 35% 저렴한 수준이다.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포스트 추석’ 마케팅에 돌입한다.

가공·일상용품 40여개 상품도 가격파괴 선언 특가에 판매한다. ‘CJ햇담면(500g)’을 기존 정사가 대비 30% 할인 판매하며, 올해 상반기 출시된 ‘팔도 마라왕 비빔면(135g*4)’은 기존 정사가 대비 50% 할인한다. 밀가루, 설탕, 냉동만두 등 가공식품부터 화장지, 물티슈 등도 특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도 19일부터 30일까지 ‘스노우플랜 가을 페스타’를 진행한다.

‘스노우 특가’는 스노우플랜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할인이다. 상품 결제 시 ‘롯데마트GO’ 앱 내 바코드를 스캔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미가입 고객의 경우 이번 행사 기간동안 ‘롯데마트GO’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 시 바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캐나다산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반값 할인해 990원에 선보인다. 더불어 행사 전체기간 동안 ‘동원 간편 한끼 훈제연어(150g·냉장·연어·칠레산)’를 30% 할인해 6930원에,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대추방울스윗마토(500g·팩)’는 1000원 할인해 각 4990원에 판매한다.

일반 할인 상품에는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하는 ‘네오플랜 퓨어락 밀폐용기 12종’은 스노우플랜 회원에게 10% 추가 할인된다. ‘청정원 고추장 2종(각 2kg)’도 40% 할인에 스노우플랜 회원 3000원 추가 할인이 더해져 정상 판매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1만 4760원에 판매한다. ‘동원 소화가 잘되는 우유(2.3 l)’와 와인 ‘란 멘시온 리제르바·그란 리제르바(각 750ml)’, ‘동서 카누 미니 3종(각 0.9g·150입, 마일드/다크/라이트)’, ‘3M 테이프클리너 롱핸들팩(대형)’ 등도 추가 할인이 제공되는 스노우 특가 상품이다.

홈플러스 역시 19일부터 25일까지 ‘가을의 맛 AI로 맞나다’를 필두로 가을 대표 인기 먹거리와 명절 연휴 기름진 음식에 지친 입맛을 살려줄 때 음식 등을 총망라해 최대 50% 할인가로 선보인다.

‘가을의 맛, AI로 맞나다’ 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고객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가을 대표 먹거리를 엄선해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철 맛은 ‘신안 생물 새우·왕새우(100g)’는 20~25일까지 50% 할인해 각 2590원, 2990원에 선보이고, ‘햇호박고구마(여주·해남·영양, 1kg)’는 2000원 할인한 5980원, ‘호주정정우 안심(100g)’은 50% 할인한 4450원에 제공한다. 또 ‘1990 한돈 포떡돼 삼겹살·목심

(100g, 온라인 및 서귀포점 제외)’은 1990원에 판매하고, 7대카드 결제 시 ‘냉수마찰 기절꽃게(100g)’는 40% 할인한 1140원, ‘15Brix 사인머스켓(1.2kg)’은 3000원 할인한 1만3990원에 내놓는다.

추석 연휴 동안 기름진 명절 음식에 지친 입맛을 깨워줄 때 음식들로 중무장한 ‘회곤 얼얼 페스타’에서는 델리부터 간편식까지 다양한 때운 먹거리를 선보인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대표 인기 상품 ‘보떡돼’를 더욱 고소하고 풍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보떡돼 한입 고추장 삼겹살(600g)’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냉장육을 사용해 육즙 가득 부드러운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강원도 돼지 고추장 불고기(800g, 서귀포점 제외)’는 40% 할인한 8990원에 판매한다. 특제 소스로 고급 중식당의 맛을 재현한 ‘홈식탁 매콤간장양념(900g 이상)’은 2000원 할인한 1만3990원에 내놓는다.

또 용두동식 매콤함과 감칠맛이 매력적인 ‘용두동 낙지·주꾸미 볶음(608g·600g)’은 40% 할인한 1만1940원에 판매하고, 유명 레스토랑 하이라오의 맛을 집에서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홈하이 디라오 소스로 만든 마라튀김(915g)’은 홈플러스 쿠폰 적용 시 1000원 할인한 1만1990원에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패션업계에서 남성과 여성 성별 구분이 희미해지는 젠더리스(Genderless)트렌드가 확산하며 관련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젠더리스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들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젠더리스 트렌드’ 제품 눈길

헌터·풋볼스탠다드 등 선봬

최근 패션업계에서 남성과 여성 성별 구분이 희미해지는 ‘젠더리스(Genderless)’ 트렌드가 확산하며 관련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젠더리스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들을 선보인다.

1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최근 신관 지하 1층에 들어선 ‘헌터’는 레인부츠의 대중화에 기여한 브랜드로 손꼽힌다. 1856년 영국에서 출발한 헌터는 레인부츠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뛰어난 디자인으로 패션 브랜드로 거듭났다. 특히 여성 중심이던 레인부츠 고객층을 남성까지 넓히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실제 광주신세계 헌터의 7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레인부츠 매출 중 20%가 남성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터는 이러한 젠더리스 트렌드에 맞춰 남성 레인부츠를 강화하며 백팩과 크로스백 레인코트 등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신관 지하 1층에 팝업 매장의

로 오픈한 ‘풋볼스탠다드’에서도 젠더리스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토트넘 핫스퍼와 아스날 등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들의 유니폼을 주로 선보이는 풋볼스탠다드에서는 여성 고객들의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주로 구입하던 유니폼을 여성 고객들이 찾게 되면서 풋볼스탠다드에서는 제품 사이즈를 남녀 공용으로 출시하고 있다.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던 애슬레저룩에서도 젠더리스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애슬레저룩이란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운동복이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의미한다.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젝시믹스’는 애슬레저룩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다. 필라테스와 요가복 등을 찾는 여성 고객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 고객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시믹스에서는 남성용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제시믹스에서는 남성용 컴퓨터를 카고 조거팬츠와 트리플 X 슛 슬리퍼 등을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싹쓸이

금상 3개 등 총 12개 상 수상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3개나 거머쥐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과시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 Industrial Design Society of America)가 주관하는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 3개와 큐레이터스 초이스상을 포함해 총 1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손꼽히는 IDEA 디자인 어워드는 1980년부터 시작된 북미 최고의 디자인 대회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번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기아 EV9. 기아 제공

·기아는 자동차·운송(Automotive & Transportation) 부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N’과 기아 ‘EV9’로 최고상인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EV9은 iF 디자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각각 금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도 금상을 수상해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모두에서 최고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포니 헤리티지 캠페인은 현대차의 브랜드 우수성을 알리며 브랜딩 부문에서 금

상을 차지했다. 특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포니 헤리티지 컬렉션은 전체 IDEA 디자인 어워드 출품작 중 단 하나의 작품에만 수여되는 큐레이터스 초이스 상(Curator’s Choice Award)에도 선정돼 이목을 끌었다.

현대차 싼타페와 싼타페 XRT 콘셉트는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각각 동상과 입상을 수상했다.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역동적인 우아함에 기반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입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패키징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포장 시리즈가 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공공모빌리티 ‘스페이스(SPACE)’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브랜딩 부문에서 △헤리티지 매거진, 아웃도어 부문에서 △멀티랜턴 등이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입상에 선정됐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 시장 공략 강화

삼성전자가 ‘AI 가전=삼성’ 공식 선봉장 역할을 해 온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사진)를, 이달부터 페루·아르헨티나 등에 출시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중남미 시장에서 유일하게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히트 펌프 방식인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 도입을 기념해 멕시코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신제품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현지 소비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국내와 4월 북미 시장에 이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이후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15개국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유럽 판매도 시작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일체형 제품이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삼성전자 국내 드럼세탁기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호평받고 있다.

박소영 기자

